

## “목포대·순천대, 15일까지 대학 통합 합의해달라”

김영록 지사 “의정협의체 안전 논의 위해 시간 많지 않아”  
통합의대, ‘1도1국립대’ 정책 부합·정부수용 가능성도 높아  
“정상에 다 이르렀는데 다시 산을 내려갈 수는 없어” 호소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에 15일까지 대학 통합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양 대학이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을 가시화할 만한 협상 결과를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양 대학이 기본적으로 통합 필요성·당위성에 공감하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데다, 관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목포대·순천대의 ‘통 큰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현재 양 대학의 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견을 빨리 해소해 15일까지는 통합에 합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고 조만간 의대 정원 문제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협의체 안전으로 논의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시간은 많지 않다”고 통합 조기 결정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2월 결정될 사안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조기에 결정될 수도 있다”며 “당초 오는 20일까지 정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추천한다고 했지만 외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추천할 수록 좋을 것”이라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까지 양 대학 총장들이 대학 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해 협의를 잘 이끌어 왔다”며 “어려운 결단이지만 양 대학과 총장들이 도민 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소한 15일까지는 합의해 결론을 내고, 세세한 부분은 양 대학이 더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통합으로 결론내리면

좋지만 안되면 공모로 1개 대학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모 추천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통합의대에 비해 다소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는 차선책이며, 최선책은 통합의대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상에 다 이르렀는데 다시 산을 내려갈 수는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양 대학의 통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대학의 미래 발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논의에 빨리 대비할 수 있고, 정부의 1도(道)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정부 수용 가능성도 높다”고 통합의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합의대가 지역의 상생·화합과 통합 정신에도 부합하면서 각 캠퍼스별로 대학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양 대학에서도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민들도 양 대학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오는 20일까지 제안서 공모, 21-22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25일 최종 추천 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Today**  
지방의원 댁페이크 협박 잇따라 6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장흥 14면  
ACLE 5차전 홈 광주서 열린다 16면



질어가는 가을색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울긋불긋 물든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광주 재활용 쓰레기 수거 급감...민원 폭증

정다운 시의원 “청소차 불법 발판 제거 후 14% ↓” 대책 촉구

광주지역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의 안전을 위해 ‘청소차 불법 발판’을 제거했지만 오히려 쓰레기 수거율이 급락해 주민 민원이 급증했다.

광주시의회 정다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북구2·사진)은 12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청소차 불법 발판’을 제거했지만 오히려 쓰레기 수거율이 급락해 주민 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 경우 지난 8월 재활용 수거 차량 13대에서 모두 발판을 제거했다. 청소차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은 주택가 골목마다



적지 않은 쓰레기 수거 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재함 덮개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했다.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특성상 발판 탑승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북구 관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판을 제거하기 전인 7월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96만15천30kg였지만, 제거 이후 8월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8만4천840kg으로 14%나 감소했다.

반면,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민원은 급증했다.

북구청에 접수된 쓰레기 민원건수는 ▲2022년 771건 ▲2023년 674건 ▲올해 9월 말 기준 3천422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2면에 계속 /박성강기자

## 수능 D-1...오늘 예비소집, 시험장·선택과목 확인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13일 개별적으로 수능 시험 장소 확인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한다.

단, 시험실이 마련된 건물 안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

1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소속(출신) 학교에서 수능 유의 사항을 공지하는 예비소집과 함께 수험표를 배부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시험장·시험실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14일 시험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에 명기된 지정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1교시 전까지 대기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선택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험생들이 모여 예비소집일에 시험장을 방문했다면 코로나 이후 개념이 바뀌어 각자 알아서 찾아가고 소속 학교에서 수능 유의사항 설명 등이 이뤄진다”며 “수험생들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부된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시험에 응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이어기자

###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고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